〈인문사회계열〉

2015학년도
논술전형고사 출제배경 및 해설

SEOULTECH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문제 1]

1. 출제 배경 및 제시문 해설

이 문제는 언어 평등에 대한 수험생들의 인식 수준을 점검해 보고 고등학교 국어, 문학, 문법, 작문, 화법, 독서 등의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출제하였다. 제시문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대부분에서 공통으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을 인용했다.

제시문 (가)는 '비판적으로 글 읽기' 단원에 들어 있는 '얼짱은 사전에 등재될 수 없다'라는 글이다.

제시문 (나)는 '언어의 다양성' 단원 중 '사회 방언'을 소개한 글이다.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 방언을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흔히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불리는 '세계 인권 선언문'의 일부분이다. 언어 평등의 가치를 탐색하기 위해 인권의 기본에 해당하는 자유와 평등 부분을 발췌했다.

수험생들은 (가)의 논지를 요약해야 하며 논지 속에 들어 있는 언어의식을 추론해야 한다. (나)와 (다)를 이용하면 (가)에 내재된 언어의식을 비판할 수 있다.

2. 예시 답안

[1.1]

어떤 단어를 사전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단어로서의 자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가 기준점이 된다. '얼짱'은 그렇지 못하다. '얼짱'은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유행어이다. 외모 지상주의 열풍에 휩싸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얼짱'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속어이다. 아무 자리에서나 자연스럽게 쓰기에는 부적절하다. 또 '얼짱'은 구성법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조어 방식을 따르고 있다. 특정 계층의 속어이고 생명이 짧은 유행어이며 사회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구성법에 따라 만들어진 '얼짱'은 사전에 등재될 수 없다.

[1.2]

언어는 의사소통의 중요 수단으로, 사용자가 속한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타인의 언어에 대한 이해는 타인과 타인이 속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가)의 필자는 표준어와 고급 언어를 우선적으로 사전에 등재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얼짱'을 속어로 분류한다. '얼짱'은 (나)에서 말하는 사회 방언 중 세대어 혹은 연령어에 해당한다. (가)의 필자가 사용하는 언어 역시 지식인이 사용하는 직업어로서의 사회 방언이다. 사회 방언은 사회의 변화와 구성원의 삶의 방식을 반영하여 생성된 언어이다. 사회 방언의 다양성은 사회의 다양성과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사회 방언에 나타나는 언어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타인의 언어를 속되게 취급한다면 그 언어의 사용자 또한 비하하는 것이다. 언어는 인간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언어에 대한 존중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같다. (다)에서 말한 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듯이 언어 사용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가)에 내재된 언어의식에 따르면 표준에서 위배되는 문화와 존재는 가치 없는 것이 되는데 이는 평등의 이념에 위반된다.

3. 출제 근거

- 김병권 외, 『고등학교 국어(상)』, 더텍스트, 2013, 121~126쪽.
- 김종철 외, 『고등학교 국어(상)』, 천재교육, 2014, 160~169쪽.
- 문영진 외, 『고등학교 국어(하)』, 창비, 2014, 161~168쪽.
- 민현식 외, 『고등학교 국어(하)』, 좋은책신사고, 2014, 138~139쪽.
- 박갑수 외, 『고등학교 국어(상)』, 지학사, 2014, 106~107쪽.
- 박갑수 외, 『고등학교 국어(상)』, 지학사, 2014, 185~188쪽.
- 박영목 외, 『고등학교 국어(하)』, 천재교육, 2014, 121~129쪽.
- 오세영 외, 『고등학교 국어(하)』, 해냄에듀, 2014, 92~99쪽.
- 우한용 외, 『고등학교 국어(하)』, 두산동아, 2014, 200~208쪽.
- 윤여탁 외, 『고등학교 국어(하)』, 미래엔, 2014, 130~139쪽.
- 윤희원 외, 『고등학교 국어(하)』, 금성출판사, 2013, 82~83쪽.
- 조남현 외, 『고등학교 국어(하)』, 교학사, 2013, 98쪽.

[문제 2]

1. 출제 배경 및 제시문 해설

평등의 개념은 자유의 개념과 더불어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도덕 교과의 주요 교육 내용이며, 사회 불평등 문제와 해소 방안에 대한 내용은 고등학교 사회 및 사회·문화 교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번 문항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과 주어진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구성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시문 (가)는 상속에서 성평등, (나)는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 (다)는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 (라)는 자민족 중심주의의 문제점, (마)는 개성, 다양성의 인정과 사회적 차별의 관계를 다룬 글이다. 각 제시문의 요지를 파악하되, 주어진 제목을 중심으로 각 제시문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2. 예시 답안

평등 사회란 우선 사회적 차별이 없는 사회를 가리킨다. 성별을 이유로 기회를 제한하는 성차별, 특정 인종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인종차별, 특정 종교를 배척하는 종교차별 등이 없는 사회이다. 상속 등 재산권에서 성차별 금지는 그 사회의 성평등 정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투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장애인이 기본권 행사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평등 사회는 단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없는 사회일 뿐만 아니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이다. 사회적 차별은 개성과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흔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모해 가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종·종족·문화적 차별은 자민족 중심주의에 도취된 기존 주민이 이주민의 문화를 폄하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주민의 사회 정착을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주민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도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인종차별은 이주민과 기존 주민이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할 때 사라질 것이다. 사회적 평등이 실현되면, 다른 사람, 다른 집단에 대한 배타적 태도와 불신은 적어지고 사회집단 사이에 의사소통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평등 사회의 조건은 사회통합의 조건이기도 하다.

3. 출제 근거

- 김종욱 외, 『고등학교 사회』, 교학사, 2014, 214쪽.
- 박선웅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금성출판사, 2014, 134~159쪽.
- 박윤진 외, 『고등학교 사회』, 지학사, 2014, 62쪽.
- 박찬구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2014, 257~262쪽.
- 박효종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학사, 2014, 260~265쪽.
- 변순용 외, 『고등학교 도덕』, 천재교육, 2014, 140쪽.
- 이인석 외, 『고등학교 한국사』, 삼화출판사, 2014, 62쪽.
- 최병모 외, 『고등학교 사회』, 2014, 미래엔, 2014, 172~173쪽.
-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법문사, 2014, 67쪽.

[문제 3]

1. 출제 배경 및 제시문 해설

우리 헌법에는 많은 인권 중에서 중요한 것을 모아 기본권 보장의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는 평등권을 비롯하여 참정권 등이 있다.〔제시문 (라) 참조〕 이들 기본권은 무한정 그리고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는데, 기본권 제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제시문 (가)〕 <보기>는 주민이 지방 선거에서 자신이 행사한 선거권〔제시문 (나)〕의 가치가 인구밀도가 낮은 유권자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불평등한 취급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한 실제 사례이다.(고등학교 교과서 지문 인용)

인구분포의 불균형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선거권의 가치에 비해 낮은 가치로 취급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가치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면 이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헌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보기>와 제시문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지, 이러한 위헌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소원 제도〔제시문 (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이 출제 의도이다.

제시문 (가)는 기본권과 그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정치 참여 및 기본권 실현의 방법으로서 선거의 의의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헌법재판소의 기능, 헌법재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평등권, 선거권, 이들 양자 간의 관계, 선거권의 평등과 선거권 가치의 불평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이 제시문과 <보기>를 보면, 이 글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질문에 적절히 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이유에서 제시문을 논리와 순서를 기준으로 배열하지는 않았다.

2. 예시 답안

현대 대의제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 선거는 선거권에 기초한 것으로 유권자의 선거권은 서로 평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구분포가 고르지 못하여 인구집중이 심한 도시지역과, 반대로 집중이 낮은 농촌 내지 도농지역이 있는데, 이들 지역의 지방 선거에서 두 선거구 간에는 선거권의 가치가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인구밀집 지역의 선거권자가 행사한 선거권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선거권에 비해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선거권의 가치가 상대적이다. 그런데 선거권도 기본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인구밀집 지역에서 선거하는

선거권자의 선거 가치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그것에 비해 너무 현저히 낮게 평가된다면, 이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위헌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선거권의 가치에 있어서 불평등의 한계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를 궁극적으로 심사하는 담당 기관으로서, 선거권의 침해에 대한 심사방법으로 헌법소원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선거권 가치의 불평등은 국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 선거권 가치의 불평등을 용인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는 공권력의 작용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되어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된다. <보기>처럼 인구집중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선거권의 가치비율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면,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경우 <보기>의 청구인들처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위헌 결정을 토대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3. 출제 근거

- 강운선 외, 『고등학교 사회』, 한솔교육, 2013, 216, 241, 250쪽.
- 김왕근 외, 『고등학교 법과 정치』, 천재교육, 2013, 61, 106, 116쪽.
- 김종욱 외, 『고등학교 사회』, 교학사, 2013, 196, 198~199, 232쪽.
- 고인석 외, 『기특한 고등 사회』, EBS, 2013, 203쪽.
- 류재명 외, 『고등학교 사회』, 천재교육, 2014, 212, 240쪽.
- 문용린 외, 『고등학교 도덕』, 금성출판사, 2014, 104~105쪽.